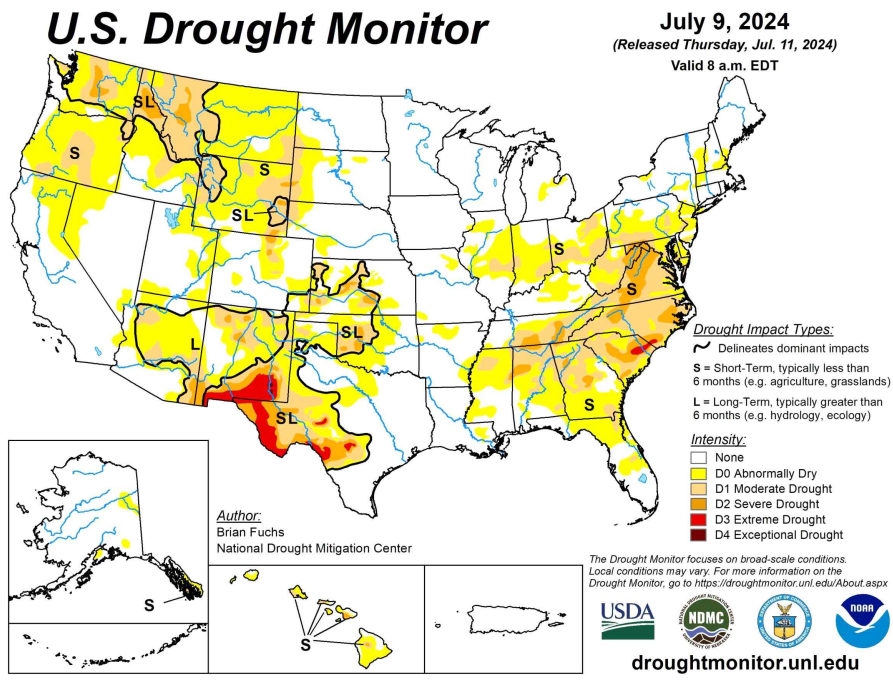


7월 1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29)

□ 미국 기후 현황(7/7-7/13)

허리케인 베릴이 7월 8일 새벽이 되기 전에 텍사스 주 마타고르다 근처에 상륙했으며 최대 지속 풍속은 시속 80 마일에 가까웠고 폭풍 해일은 국지적으로 4 피트를 초과했다. 텍사스 중부 해안을 따라 발생한 광범위한 돌풍은 시속 80-90 마일 이상으로 측정되었고 북쪽으로 휴스턴 대도시 지역을 가로질러 확장되어 270만 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전기 공급이 끊겼다. 베릴은 점점 빠른 속도로 북동쪽으로 중남부와 중서부 남쪽을 가로질러 가면서 텍사스 동부에서부터 뉴잉글랜드 북부까지 좁은 폭우 띠를 만들어내었다. 한랭 전선에 흡수되기 전인 7월 10일 베릴의 최종 추정 위치에 따르면 뉴욕 주 버팔로 바로 서쪽에 있었다. 베릴이 텍사스 동부에서 10-15 인치의 강수를 내려 돌발 홍수를 일으켰으나 중남부와 중서부 남쪽에 내린 비는 여름작물들에게 해롭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유익했다. 주 후반에 따로 한 지역에 내린 폭우가 중대서양 연안 평야를 적셨고 한편으로 남동부 남쪽에는 뇌우가 드문드문 내렸다. 다른 곳에서는 드문드문 내리는 소나기가 평원과 중서부 북쪽에 영향을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 덥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서부를 지배했다. 태평양 연안 주들의 일부에서는, 로키산맥 최북단은 물론이고,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 F 높았다. 평년 이상의 기온이 동쪽으로 미국 북부 국경 지대를 가로질러 오대호 상류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대서양 연안 주들에서 별도로 한 지역에 자리 잡은 더운 날씨가 북동부의 주간 기온을 평년보다 5-10° F 올렸다. 대조적으로 중남부와 중서부 대부분과 함께, 로키산맥과 평원의 중앙 및 남부 구역은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약간 낮은 기온으로 둘러싸였다.



□ 농업 현황 요약(7/8-7/14)

나라 대부분이 평년보다 건조한 날씨를 경험했으나 허리케인이 상륙한 텍사스 동부에서부터 미시시피 계곡 중하류, 오대호 그리고 뉴잉글랜드 북부까지 뻗어 있는 경로를 따라서 허리케인 베릴의 잔재가 평년보다 최소 두 배의 강수량을 발생시켰다. 대서양 중부의 일부 지역 들에는, 아울러 남부 평원, 남동부 및 남서부 일부까지에도, 주간 강수량이 평년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이었다. 텍사스 걸프 연안 일부에는 총 9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한편, 동부, 북부 그리고 서부 대부분은 평년보다 따뜻했다. 캘리포니아와 태평양 북서부 일부는 평년보다 12°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대조적으로 미시시피 계곡, 중앙 및 남부 평원 그리고 로키산맥 남부 대부분은 평년보다 선선했다.

□ 세계 기후 현황(7/7-7/13)

■ 유럽:

이글거리는 더위를 보인 유럽 남동부와 달리 더 먼 북쪽과 서쪽에서는 폭풍우가 불어서 뚜렷하게 대조되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심화된 폭염은 헝가리와 다뉴브 강 계곡에 있는 주요 여름 농작물 지역들을 괴롭혔는데, 낮 최고 기온의 범위는 섭씨 30도 후반에서부터 루마니아 남부에서 최고치로 41° C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7월 14일 현재, 루마니아 남부의 왈라키아 평원은 최고 기온이 8일 연속 35° C를 웃돌았고 기온이 매일 상승했다. 발칸반도의 옥수수 수수는 온도에 민감한 생육기에 빠르게 다가가거나 지나고 있었고 한편 대두와 해바라기는 만개했다. 그리스에서는 극심한 더위 (42° C 정도로 높은)가 지속되어 개화중인 면화에 대한 관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했고 작물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더운 날씨 (35-40° C)가, 주요 옥수수 지역은 포 강 계곡이 그 더위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서쪽으로 이탈리아를 가로질러 확대되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남부에서는 낮 기온이 40° C로 높아져 생식기 해바라기에 대한 관개 수요를 높였고 다른 한편으로 이 나라의 주요 옥수수 지역인 카스티야이레온에서는 30도 초반대의 기온을 유지했다. 더 북쪽에서는 강한 한랭 전선이 유럽 중부와 북부 전체를 휩쓸어 프랑스에서부터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까지 보통 내지 강한 수준의 광범위한 비와 뇌우 (10-100 mm)를 일으켰다. 또한 유럽대규모폭풍연구소(European Severe Storms Laboratory)에서는 대규모 우박, 파괴적인 바람, 국지성 홍수, 토네이도 등 2천 건이 넘는 악천후 보도를 내었다. 그 강력한 한랭 전선은 폴란드에서 주초의 더위 (34-36° C)를 갑작스럽게 종식시키기도 하였다; 그 전선과 함께 내린 폭우 뒤에 훨씬 더 선선했던 기온이 더위 우려를 제거했다. 대륙의 북서부 사분면 전체적으로 이번 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 C 낮았으나 유럽 남동부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9° C 높았다.



■ 구소련(서부):

맹렬한 폭염이 이 지역 전체적으로 많은 주요 여름 농작물 지역을 괴롭혔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리고 러시아 남부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4-8° C 높았고 러시아 중부 지방 (평년보다 2-4° C 높음)과 불가 지방 (평년보다 1-3° C 높음)에서는 이상 기온이 덜 나타났다. 벨로루시 남부, 우크라이나 서부와 남부 그리고 러시아 서중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후반에 도달했고 몰도바와 러시아 남부에서는 최고 기온이 40° C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이었다. 옥수수는 수꽃기(북쪽)에서부터 수염기(남부)까지 다양했고 러시아의 남부와 북부 코카서스 지방에서는 이미 더위 및 가뭄과 관련된 작물 스트레스와 수확량 손실이 상당히 발생했다. 7월 14일 현재 파괴적인 폭염으로 가장 영향을 받은 러시아의 옥수수 재배 주들은 다음과 같다: 로스토프, 7월 1일 이후로 최고 기온이 35° C를 초과한 일수가 11일이었고 최고점의 기온은 40.3° C였다; 크라스노다르, 35° C를 초과한 일수가 12일이었고 최고점의 기온은 40.7° C였다; 스타프로폴, 7월에 35° C를 초과한 일수는 9일이었고 최고점의 기온은 41.3° C였다. 그 더위는 모니터링 기간이 끝날 무렵 다소 줄어들었지만 7월 15일 현재 낮 최고 기온이 다시 40° C로 급등했다. 해바라기와 대두는 만개했고 곧 있으면 온도에 민감한 핵심 생육기에 들어갈 것이다. 북코카서스 지방과 남부지방의 남쪽 일부에 약하거나 보통 수준의 소나기들 (2-25 mm)이 내려서 그 더위를 일시적으로만 해소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중부 지방에서는 좀 더 강한 소나기와 뇌우 (5-40 mm)가 영양 후기 내지 개화기 여름작물들에게 좋은 조건을 유지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맑은 하늘이 극단적인 더위로 인한 토양 수분 손실과 증발산 속도를 높였다.

■ 동아시아:

폭우와 함께 계속되는 좁은 강우 띠가 중국 중부에서부터 동쪽으로 남한과 일본 남부까지 확장되었다. 장강 계곡의 북쪽 경계를 따라 화북평원까지 중국 전역을 가로지르는 그 소나기들은 25-100 mm을 내렸고, 국지적으로는 200 mm를 넘어갔다. 일부 국지적인 홍수에도 불구하고 그 수분은 재배 철 초기 몇 주 동안 가뭄 조건이 있던 이후 다양한 여름작물들에게 반가운 것이었다. 그 강우는 일본에서는 벼와 기타 작물들에게 비슷하게 양호한 것이었고 한편 총 강우량이 200 mm를 초과했던 한국에서는 홍수가 더 안 좋아졌다. 한편 남중국에서는 유리하게 더 건조한 날씨가 6월에 일어난 그 광범위한 습기와 홍수를 완화했다; 6월 총 강우량은 평년보다 두 배 더 많았고 이는 30년 최고치였다. 북동부 성들에서는 더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고 이곳의 수분 조건들은 옥수수와 대두에게 여전히 좋았다.

■ 호주:

반가운 소나기가 밀 지대 대부분에 확산되어 영양기 밀, 보리, 캐놀라의 성장을 촉진했다. 대부분의 지역에 10-25 mm의 비가 내렸는데 고립된 장소들에는 다소 적거나 많은 양이 내렸다.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10도 중후반이었다. 동쪽에서는 그 온화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양호하거나 아주 좋은 재배 초기 작물 전망을 유지했고 남쪽과 서쪽에서는 수확량 전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아르헨티나:

춥고 건조한 날씨가 그 지역을 지배하여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여전히 출현 중인 겨울곡물들의 초기 성장을 늦추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평년보다 4° C 낮은 수준에서부터, 산타페 대부분과 파라과이의 접경 대표지들을 포함하여, 북부 농업 지역들에서 평년보다 8° C 낮은 수준까지의 범위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역들에서 결빙을 기록했고 산티아고델에스테로처럼 먼 북쪽에서는 최저 기온이 -5° C 이하로 떨어졌다. 거의 완전한 건조함에 한파가 함께 발생했고 강우량이 총 5 mm 이상인 곳들은 먼 남쪽과 북동쪽에 있는 외곽 농업 지역들로 제한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밀과 보리는 7월 11일 현재 둘다 86 퍼센트 파종되었다; 한편 옥수수과 면화는 각각 80 및 83 퍼센트 수확되었다.

■ 브라질:

소나기들이 이전에 건조했던 남부 생산 지역들의 영양기 내지 생식기 밀에게 도움이 되었다. 마투그로수두술 남부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산타카타리나 전체에 내린 총강우량은 10-50 mm 였고, 국지적으로는 75 mm를 초과했다. 날씨는 선선했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8° C 낮음) 남부에는 습기가 동반되었으나 히우그란지두술에서만 결빙이 있었고 이곳은 양호하게 더 건조한 조건들을 기록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기작 옥수수는 7월 8일 현재 66 퍼센트 수확되었다; 한편 밀 파종은 거의 완료되었으며 (99 퍼센트), 출현한 작물의 32 퍼센트가 개화 내지 종실 비대 중이었다.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밀이 7월 11일 현재 작년의 88 퍼센트와 5년 평균 90 퍼센트 대비 82 퍼센트 파종되었다. 더 북쪽에서는 따뜻하고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중후반에 도달) 계절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옥수수와 면화의 성숙 및 수확을 촉진했다. 마투그로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7월 12일 현재 90 퍼센트 수확되었는데 이는 5년 평균 속도보다 15 포인트 이상 앞선 것이다. 한편 면화는 평균 14 퍼센트 대비 6 퍼센트 수확되었다.